

송갑석 “차기 지도부, 진정한 호남 정신 필요”

전북도청 기자실 기자회견 “광주·전남·전북 뭉쳐야” “서류 편승 않는 호남 정신, 민주당 가야 할 방향” 김원이 “송갑석을 지켜주십시오” SNS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호남 단일 후보로 출마한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갑)이 1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에 진정한 호남 정신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장인 호남은 2회 연속 최고위원을 배출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전당대회도 계파 없는 비수도권 후보, 호남 단일 후보에게 가혹한 선거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진정한 호남정신의 실천을 위해 호남 단일 후보의 지도부 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호남 정신은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당이 민심과 멀어질 때 멈춰 세우고, 주저할 때 북돋아 주고, 잇나갈 때 과감히 할 말을 하는 정신”이라며 “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던 호남의 정신이야말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8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광주·전남·전북 모두를 지역구라 여기고 뛰었다”며 “호남 경제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 최초의 초광역 경제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호남의 정신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패배했고, 호남 정치의 맥이 끊길 때 민주당은 흔들렸다”며 “호남 단일후보로서 호남의 정

신을 민주당 지도부에 새기고,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이라는 호남의 강렬한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지지 움직임도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우리 호남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고 민주당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단단한 결집으로 당을 구해냈으나 민주당 역사의 당당한 축으로서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정치 복원을 향한 열망은 계파 경쟁에 가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남 단일 후보 송갑석이 살아남아야 호남 정치가 살고 민주당이 살 수 있다”며 “호남의 자존심, 호남 단일 후보 송갑석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거듭 호소했다.



향의받는 주요영 비대위원장 11일 오전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서울 동작구 서당동을 찾은 국민의힘 주요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에게 한 시민이 길을 막지 말고 비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작구는 집중 호우로 전동시장부터 상가 건물 등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측 ‘비대위 전환’ 반발 고조 17일 심리 앞두고 지지당원들도 오늘 가처분 집단소송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법적 대응에 고삐를 당기고 나선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두고 17일 당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데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에서도 이날 가처분 신청, 12일 탄원서를 연달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할 이번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에는 최종적으로 책임당원 1천558명이 신청인으로 참여했다고 소송 대리를 맡

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힌 가운데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무효화하고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며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도록 물밑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집권여당 당권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법적 공방이 확산하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우려다.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오전 MBC·YTN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 “당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자동 해임됐다고 몰아가는 것”이라며 “본인 대표직은 유지되고 당원권 정지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출구가 열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대표와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차기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주철현 “역사문화공간 사업 거문도 선정 환영”

문화공간·체험공간·편의시설 등 360억원 투입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시갑)은 11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을 환영했다.

주 의원은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를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거문도는 평가 과정에서 ▲거문도사건 등 근대문물 유입과 관련된 문화유산 보존 ▲내항을 중심으로 한 근대 가옥거리 ▲해방 이후 지방자치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삼산면 의사당 건물 등 근대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이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문화재청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공모 사

업에 2024년부터 5년간 36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거문도 사업은 보존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학술 조사연구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록문화재의 보수·복원 ▲역사경관 회복 등 추진과 활용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교육·전시·체험공간 조성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구인 거문도가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어촌마을의 근대생활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적극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전국 9개 지자체가 접수해 현지 조사를 비롯한 종합평가 등

지역한 경쟁을 거친 끝에 거문도가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여수시와 소유자 등과 협의해 거문도의 다양한 공간과 문화자원에 대해 국가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특화된 명소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시킬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거문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문화재청과 함께 노력해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동료 선배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거문도가 지난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고 관리해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멋진 콘텐츠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하나로마트서 비상경제회의…추석 민생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식아동·특기노인·장애 이

웃들을 위한 급식 지원, 도시락 대체 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도 언급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런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추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